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 최재형

<1회>항일운동가 최재형, 그는 누구인가?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어느덧 광복 76년이 되었다. 국내와 국외에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떳떳하게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일이 곧 애국의 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바로 최재형이다.

소작농의 아들에서 글로벌 청년으로

최재형은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근과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 아홉살에 아버지 최홍백을 따라 연해주로 이주했다. 최재형은 한인 최초로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형수의 심한 구박으로 열한살에 가출을 한다. 러시아 극동의 항구포 시에트 바닷가에 허거져 쓰러진 최재형을 구해준 사람은 상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무역을 하는 러시아 선장이었다. 최재형은 선장 부부의 극진한 사랑으로 11세부터 17세까지 6년 동안 세계를 돌며 무역과 상술을 배우고 세계의 지리와 정세를 익힌다. 특히 선장 부인은 최재형에게 러시아어와 중국어, 세계의 문화와 교양까지 특별한 사랑으로 교육을 시킨다. 청소년시기 최재형에게 6년 동안의 항해는 최재형을 글로벌 청년으로 환골탈태시킨다.

유명한 러시아어로 한인들의 폐치카(난로)가 되다

영국이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하자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동방을 정복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도시 이름도 블라디보스토크라 짓는다. 러시아어로 블라디는 '정복하다'이고 보스토크는 '동쪽'이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각종 도로공사, 건축공사, 식료품 및 공산품 생산까지 일자리가 폭주하게 된다. 한인들의 노동력도 급증한다. 그러나 한인들은 러시아 인구에 비해 대우가 형편없었다. 최재형은 통사(통역) 일을 하면서 한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 기록에 보면 최재형은 누구에게나 동

등하게 대했다고 한다. 자신의 신분이 천민 출신이니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한인들은 자신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최재형을 존경하면서 초상화를 걸어놓았고 최재형의 애칭을 난로라는 뜻으로 폐치카라 불렀다. 동양의 카네기라 불리던 자신에게서 러시아 안치혜의 도헌(군수)가 되다.

최재형은 군납회사를 차려 군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유창한 언어로 한인들에게 알맞은 일을 알선해주고, 한인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지도력을 발휘한다. 한인들은 최재형을 믿고 따르면서 점차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재형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한인마을의 노야(총장)를 거쳐 드디어 안치혜 남도소의 도헌(군수)가 된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한인대표로 초청받고 러시아 한인 마을마다 32개의 소학교를 세운 교육가

최재형은 러시아 사회에서 신망 받는 행정가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한인대표로 초청되고 황제로부터 예복을 하사받는다. 최재형은 한인들의 교육에도 힘써 한인마을마다 32개의 소학교를 세웠고, 그가 세운 한인학교는 러시아에서 우수 학교로 지정되기도 한다.

최재형은 자신의 월급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고, 유학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와 소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게 했다.

러일 전쟁 참전후 연해주 독립단체 <동의회> 총장으로 대한군의 무장과 의식주를 지원하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도운 항일 독립운동가

러일 전쟁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고종은 1907년,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명의 밀사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마저 해산시킨다. 최재형은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중, 국내에서 망명한 안중근과 함께 독립단체 <동의회>를 조직하고 군자금으로 1만 3천 루블을 내고 러시아 공사 이범진은 아들이

위중에게 1만 루블을 주어 최재형을 찾아가게 한다. 최재형의 집에서 결성된 <동의회>는 총장 최재형, 부총장 이범윤, 회장 이위중, 부회장 엄인섭, 서기 백규삼, 우영장 안중근이 핵심인물이었다.

1909년,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최재형은 안중근과 이강과 함께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대동공보사'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모의하고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적살하는데 주도적으로 돕는다.

대동공보, 대양보, 권업신문 사장으로 언론계에 권업회 회장으로

안중근 하얼빈 의거 이후, 대동공보가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되자 최재형은 대양보 사장에 이어 1911년 권업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고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권업이라는 말은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항일독립단체였다.

전로한족대표자대회 명예총재로 대한국민회의의 외교부장,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

최재형은 1919년 전로한족대표자 대회에서 이동휘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19년 3월 17일 의회정부를 표방한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민회의'가 설립되고 최재형은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중 이동휘, 최재형, 문장범까지 무려 세 명이 나 참여했다. 최재형은 재무총장이었다. 1920년 4월 4일,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4월잡변'을 일으켰다. 이때 러시아 장군들과 함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붙잡혀 총살을 당했는데 최재형도 4월 7일에 일본의 총탄에 순국했다. 현재까지 최재형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고 일본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재형 선생은 기업가로, 한인들의 폐치카(난로)로, 한인들의 교육자로, 독립운동가로, 언론가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거대한 위인이었다.

이 내용은 CTN(http://www.ctnews.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 <1회>



리채운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밥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만일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처리한 다음에 글을 읽어라. 글을 읽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이니 만일 사물을 살피지 않고 건성으로 글만 읽는다면 부질없는 학문이 될 것이다.

-율곡 이이, 자경문(自警文) 중에서

서장: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공부

사람들은 흔히 '현모양처(賢母良妻)'의 모델로 신사임당(申師任堂) 떠올린다. 하지만 실존했던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 막상 신사임당이 살던 16세기 전반의 조선에서는 현모양처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신사임당은 귀감이 될 만한 어머니이기는 했으나, 남편에게 고분고분하거나 특별히 여진 아내는 아니었다. 아들 율곡 이이가 어머니 사후에 쓴 <어머니 행장(行狀)>을 보면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현모양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신사임당의 현모양처 이미지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

신사임당은 16세기에는 당대의 화가 신씨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사후 아들 율곡이 대학자로 대정치가로 명성이 커지는 바람에 그녀는 화가이기보다는 대학자의 어머니, 성현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이미지가 변해갔고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버렸다.

이 책은 왜곡된 신사임당 상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가 보기에 신사임당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여성의 사회생활이 여의치 않은 조선시대에 자기계발에 성공한 예술가로서의 삶이고, 두 번째는 대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珣)를 비롯한 7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뛰어난 인물로 키워낸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녀 교육법이다.

내가 신사임당에 주목한 것은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에 능한 예술가이면서, 4남 3녀를 모두 천재가로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라는 점이다.

율곡은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 장원급제를 가장 많이 한 '수석 합격의 달인'이었다. 29세에 아홉 번째 장원을 한 후 말을 타고 거리를 나서자 백성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몰려나와 '구도장원공(九度狀元公)'이라며 율곡을 칭송했다.

신사임당은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머리가 영특했던 율곡에게는 학문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켰고 예술적 재능의 싹이 보였던 큰딸 매창(梅窓)과 막내아들 옥산(玉山) 이우(李瑀)에게는 예술에 승부를 걸었다. 큰딸 매창은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빼닮아 시문과 그림에 빼어난 재주를 보여 '작은 사임당'으로 불렸다. 옥산이우는 시·서·화와 거문고에 모두 능해 조선시대 초유의 사절(四節)의 자리를 차지했다.

옥산은 신사임당이 능했던 초서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사임당서화를 형성시켰고 우리나라 초서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정교육이 중요시되는 이때에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의 롤모델(role model)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진학률이 84.5%(세계 1위)일 정도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화두(話頭)다. 수업료가 전액 무료인 독일의 경우 30~40%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국민 14명 중 1명꼴인 332만 명이나 된다면 말이 되는가.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 이 땅의 어머니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다닌다. 강남 학원가는 한밤중인데도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태우러 온 차들로 러시아워를 방불케 하고 아이들은 집에 와서도 인 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야 잠을 잘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지인은 연년생 아이 둘이 대학을 가고 유학을 보내는 바람에 가까스로 장만했던 집을 팔고 다시 셋집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인가?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내가 보기에 단지 직업을 얻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에 간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와 직장 구하기로 변질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스펙을 쌓기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한

다. 자신을 토의 점수로, 학점으로 수치화 시키고, 흔히 말하는 '자소설(자기소개서)'로 포장해도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무위당(無爲堂) 장일순 선생은 이러한 세대를 '옛날에는 사람이 공부한다는 것이 자기의 진실한 삶을 위해 수행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남에게 고용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한 바 있다.

이럴 때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을 주목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율곡 이이는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이지만 따로 사숙한 이렇다 할 스승이 없다. 신사임당은 6살 때부터 아들 율곡을 무릎에 앉히고 직접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만발 매창, 막내아들 이우를 모두 천재적 예술가와 학자로 키워냈다.

과연 신사임당 자녀교육법의 비결은 무엇일까? 신사임당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신사임당은 이미 500년 전에 아이들의 다중 지능을 지니고 있음을 깨치고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학습법'을 개발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외국 소설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한 구절이 나온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렇다. 나를 가둔 구세계, 알을 깨뜨리지 못하면 자기만의 세계,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매순간 알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매번 알을 깨고 나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일찍이 동양에서는 데미안의 그 구절보다 더 멋진 고사성어가 존재해왔다.

공부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의 여정이야 한다. 나는 이 땅의 고루한 어머니들이 하루빨리 현명한 교육자였던 신사임당의 본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연재되는 이 글은 그러한 신사임당의 자기주도학습법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이 연재를 마치기까지 읽은 당신이 '그래, 바로 이것이야!'하고 무릎을 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은 CTN(http://www.ctnews.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TN특약

탱자나무 가지 같은 말만 하는 어머니

오영미

니가 안 오니까야
목구멍에 거미줄 쳐야
원 종일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니들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돌아야
시상에 입은 뿔터러 붙어있는지
어여 온나
일주일일이 너무 길어야
나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참말로 모르겠어야
이번 주에는 꼭 올 거지?
나 죽는 꼴 보려거든 오지 말던지

오영미 프로필

충남 공주 출생. 2015 계간(시와정신)등단 시집 '침묵의연', '상처에 사과를 했다', 외 7권 충남문학상 대상·작품상, 한남문인상 젊은작가상(현) 서산시인협회 회장 sukha21@hanmail.net

기 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만들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현재 가정 폭력관련 하여 크고 작은 신고가 경찰에 많이 접수된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적은 유탄리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피해도 쉽게 가능하기 어렵다. 더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거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까봐 숨기고 고스란히 아픔을 안고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그 상처가 심각하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그로 인해 폭력성이 나타나 또 다른 범죄의 하나인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때에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며 가정폭력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안다면 더 이상 방임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112신고통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과 의료비지원, 심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이후 사후관리가 잘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이 되길 필자는 간절히 기대한다.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아니라 가정폭력은 부부간 외에도 자녀나 노인에게도 이뤄지고 있으며, 그 악랄함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어릴 적부터 친구와의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인기피증 까지 발생하고 있다.